

<제3강>

제14항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귀찮다, 김(~매다), 짜리, 무, 빔, 샘(~바르다, ~바리), 온-갖, 장사-치]

<해설>

1.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거나 사전에서만 밝혀져 있을 뿐 현실 언어에서는 전혀 또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된 본말을 표준어에서 제거하고,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준말 형태를 취한 말 중 2음절이 1음절로 된 음절은 대개 긴소리로 발음된다.

ㄱ. 짜리 : ㉠ 물건을 일 때에 머리 위에 얹어서 괴는 고리 모양의 물건. 짚이나 헝겊을 틀어서 만듦. ㉡ 둥글게 빙빙 틀어 놓은 것. 또는 그런 모양.

ㄴ. 빔 : 명절이나 잔치 때, 새옷을 차려 입는 일. 또는 그 옷.

ㄷ. 샘 : 남의 일이나 물건을 탐내거나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적수를 미워하고 속을 태움. 또는 그런 마음.

· 샘바르다 : 샘이 심하다.

· 샘바리 : 샘이 많아 안달하는 성질이 강한 사람.

제15항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경황-없다, 궁상-떨다, 귀이-개, 낱새, 낙인-찍다, 내왕-꾼, 맵자-하다, 수두룩-하다, 퇴박-맞다, 한통-치다)

다만, 다음과 같이 명사에 조사가 붙은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 (아래-로)

<해설>

본말이 훨씬 널리 쓰이고 있고, 그에 대응되는 준말은 쓰인다 하여도, 그 쓰임이 극히 적은 경우, 본말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여기의 준말들은 그 쓰임이 극히 적을 뿐더러 품위 있는 형태가 아닌 것이 대부분이어서 준말 형태를 버린 것이다.

ㄱ. 경황없다 : ㉠ 흥이 나지 않다. ㉡ 몹시 바빠 겨를이 없다.

ㄴ. 궁상떨다 : 어렵고 궁한 상태가 드러나 보이도록 행동하다.

ㄷ. 낱새 : 어떠한 일의 미묘한 기틀이나 눈치. 幾微

ㄹ. 낙인(烙印) : ㉠ 불에 달구어 찍는 쇠붙이로 만든 도장.

㉡ 씻기 어려운 욕된 이름이나 판정.

ㅁ. 내왕꾼 : 절에서 심부를 하는 俗人.

ㅂ. 퇴박맞다 :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물리침을 받다. 결재 서류가 퇴박맞았다.

스. 한통치다 : 나누지 아니하고 한데 합치다. 한통쳐서 얼마요?

제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거짓-부리/거짓-불, 노을/놀, 막대기/막대, 망태기/망태, 머무르다/머물다, 서두르다/서둘다, 서투르다/서툴다, 시-누이/시-뉘/시-누, 오-누이/오-뉘/오-누, 외우다/외다, 이기죽-거리다/이죽-거리다, 찌꺼기/찌끼)

<해설>

1. 준말과 본말 두 형태가 다 널리 쓰이고 있어서 어느 하나를 버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이다.
2. '가지다'의 준말 '갓다'의 모음 어미 활용형이 '*갓아, *갓아라, *갓았다. *갓으오, *갓은' 따위가 성립하지 않음에 유추하여 준말의 활용형을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머물어, *서둘어, *서툴어서'는 각각 '머물러, 서둘러, 서툴러서'로('르'불규칙) 표기해야 옳다.
** '머무르다'와 같은 형인 '짓무르다'는 준말로 '짓물다'형을 인정하지 않았다. '무르다'가 '물다'로 줄어들 수 없기 때문이다.
3. 디디다 - 달고, 디더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거든-그리다, 구어-박다, 귀-뫼, 귀-지, 까딱-하면, 꼭두-각시, 내색, 내송-스렵다, 남남-거리다, 남남-이, 너[四](~돈, ~말, ~발, ~푼), 녀[四](~냥, ~되, ~섬, ~자), 다다르다, 댕-싸리, 더부룩-하다, -던, -(으)려고, -(으)려야, 봉숭아/봉선화(鳳仙花), 뺨-따귀, 빼개다[斫], 빼기다[誇], 서[三](~돈, ~말, ~발, ~푼), 석[三](냥, ~되, ~섬, ~자), -습니다, -올시다, 흥-업다)

<해설>

1.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려면, 발음의 차이가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든가 두 형태가 비등하게 널리 쓰이든가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처리한 것들은 그렇지 않아서, 국어를 풍부하게 하는 쪽보다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판단되어서 단수 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2. 귀뫼 : 눈치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일깨워 줌.
3. 'ㄱ'의 발음(표준발음법 제5항 다만 3, 4)
'ㄱ'은 'ㄱ'에서 시작하여 'ㅣ'로 옮겨가는 모음이다. 그러나 전라도 방언에서는 '의'와 같은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아서 '의의', '의사'는 각각 [의이], [의사]로 발음한다. 반면 경상도에서는 이들을 각각 [이이], [이사]로 발음하기도 한다. 2007년 교육과정 문

법 해설서에서 ‘의’는 ‘-’가 반모음인지 ‘ㅣ’가 반모음인지 불분명한 음운이라 하고 있다. 표준발음법에 의하면 ‘-’를 반모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는 [ㅣ]로 발음한다.

닐리리, 닝큼, 무늬, 띄어쓰기, 희망, 하늬바람

㉡ 단어 첫음절의 ‘의’는 [의]로 발음한다.

의사[의사] 의리[의리]

㉢ 단어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단어	원 칙	허 용
의의(意義)	[의의]	[의이]
성의(誠意)	[성의]	[성이]
내의(內衣)	[내:의]	[내:이]
우리의	[우리의]	[우리에]
강의의	[강:의의]	[강:이의/강:이에]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	[민주주이의/민주주이에]

㉣. 냐냐이 : (小兒) 먹고 싶어하는 음식

☞ 두음법칙과 관련하여, ‘냐냐이’로 표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두음법칙은 한자어와 관련되어 적용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고유어인 이 단어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 발음이 [냐냐이/냐얏이]로 되는 것은 ‘ㄴ-구개음화’ 때문이다.

㉤. 댕싸리<대+빠리, 좁쌀<조+쌀, 입때<이+때, 접때<저+때, 부름뜨다<부르+뜨다

㉥. ‘-던지’와 ‘-든지’

㉠ 전라도 방언에서는 ‘어’와 ‘으’ 모음이 넘나드는 현상이 일반적이며, 젊은층일수록 더 심하다. 경상도 방언에서는 ‘어’와 ‘으’ 모음이 합류하여 하나의 모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일반적이다. ‘더럽다 → 드럽다, 자전거→자즌거, 너희들→느그덜, 거지→그지’ 등. 이런 현상 때문에 ‘-더’의 형태와 ‘-드’의 형태가 자주 혼동되어 사용되는 예가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형태·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 ‘-든(지)’은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조사 또는 연결 어미’다. 따라서 ‘선택’이나 ‘무관’의 의미일 때는 ‘-든’의 형태를 쓴다.

예) ㉠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 누가 가든(지) 쉽게 풀릴 일이 아니었다.

*** 참고 : ‘가든지 말든지’와 ‘가든가 말든가’는 모두 표준어.

㉣ ‘-던지’는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 ‘-더-’에 어미 ‘-ㄴ지’가 결합된 어미로 ㉠ 지난 일을 회상하여 막연하게 의심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감탄조로 이르는 종결 어미. ㉢ 그 지난 일이 다른 어떤 사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등으로 쓰인다. 따라서 과거 일과 관련되었을 때는 ‘-던-’의 형태를 쓴다.

예) ㉠ 그날 저녁 누가 왔던지 생각이 납니까?

㉡ 그날 따라 날씨는 왜 그리 춥던지.

㉢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었다.

ㄹ. '-데'와 '-대'

㉠ '-데'는 '하계' 할 자리에 쓰이어 경험한 지난 일을 돌이켜 말할 때 쓰는, 회상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회상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더'가 분석되고 그 기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그가 그런 말을 하데. (그가 그런 말을 하더라.)

㉢ 경치가 과연 좋데. (경치가 과연 좋더라.)

㉣ 신부가 예쁘데? (신부가 예쁘던가?) 경어법 제외.

㉠ '-대'는 '다(고) 해'의 준말. '-대'는 화자가 문장 속의 주어를 포함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청자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의미를 갖는다.

㉡ 그 여자 예쁘대(예쁘다고 해.)

㉢ 그 사람 오늘 떠난대(떠난다고 해.)

㉣ 그 여자는 책만 읽는대(읽는다고 해.)

㉤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니었대(아니었다고 해.)

㉥ 집에 있겠대(있겠다고 해.)

㉦ 범인을 보았대(보았다고 해.)

ㄻ. -(으)려고 : 장차 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이제 가려고 하오.

* (1) 부탁 하나 할려고 왔네. * (2) 나는 지금 집에 갈려고 해.

ㄼ. -습니다 : '-습니다'는 받침이 있는 어간 뒤에 쓰고, '-ㅂ니다'는 모음 뒤에 쓴다.

예) 웃습니다. 있습니다.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 갑니다, 옵니다. 사랑합니다.

· '-ㅂ니다'의 발음은 [ㅁ니다]가 되는데, 발음되는 대로 적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갑니다 : *감니다.

** 용언의 동명사형의 경우.

'먹었습, 갔습' 따위로 쓰는 것은 옳지 않음. 이들은 각각 '먹었음, 갔음'으로 써야 한다. 국어의 (동)명사형 어미는 '-(으)ㅁ/기' 이지 '-습'이라는 동명사 어미는 없음. 모음으로 용언 어간이나 '-르'로 끝난 용언 어간에는 '-ㅁ'을 자음으로 끝난 어간 뒤에는 '-음'을 붙여야 한다. 예) 아이가 잠을 잠. 맛있게 먹음. 새가 하늘을 낚. 인형을 잘 만듦.

ㄽ. '-올시다' :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하십시오」 할 자리에 '-ㅂ니다' 대신에 쓰이는 어미. '올습니다'는 '-올시다'보다 더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하여왔으나, '-올시다'가 더 널리 쓰이므로 이것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 언어 생활에서 '-올시다'는 「하쇼」 할 자리에 대신 쓰이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실제로 '-올시다'는 같은 연배이지만 '해라' 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친근하게 이를 때 쓰거나, 매우 절친한 몇 년 연상의 사람에게 그 쓰임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 : 거기 누구요.
 학생 : 홍길동올시다. (어색)
 선배 : 이것이 뭐야?
 후배 : 이게 전에 내가 말했던 것이올시다.

제5절 복수 표준어

제18항 다음 단어는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도 허용한다.

ㄱ	ㄴ	비고
네	예	
쇠-	소-	-가족, -고기, -기름, -머리, -뼈
괴다	고이다	물이 ~, 밑을 ~.
꾀다	꼬이다	어린애를 ~, 벌레가 ~.
썰다	쏘이다	바람을 ~.
죄다	조이다	나사를 ~.
찌다	쪼이다	별을 ~.

<해 설>

1. 비슷한 발음을 가진 두 형태가 있을 때, 그 발음 차이가 국어의 일반 음운 현상으로 설명되면서 두 형태가 다 널리 사용되면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어의 폭을 넓힌다.

161) 쇠- = 소+의. 국어의 단어 짜임에서 ‘명사+명사’의 구조는 관형격 조사 ‘의’가 들어가지 않아도 ‘소유’의 의미를 갖게 된다.

‘쇠고기’의 ‘쇠-’는 ‘소(牛)+의’로 해석되는 말로, ‘쇠고기’는 ‘소의 고기’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지금의 ‘표준어 규정’ 이전에는 ‘쇠고기’만을 표준어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표준어 규정’에서는 명사 ‘소’에 ‘고기’가 결합한 형태인 ‘소고기’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고기’라는 형태도 널리 쓰인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즉, ‘쇠-’의 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소-’의 형태도 허용함으로써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는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1) 쇠가족, 쇠간, 쇠갈비, 쇠고기, 쇠고깃국, 쇠골, 쇠고집, 쇠귀, 쇠귀신, 쇠기름, 쇠꼬리, 쇠꼬리채, 쇠꿀, 쇠다리, 쇠두엄, 쇠등에, 쇠똥, 쇠똥찜, 쇠머리, 쇠머리 편육, 쇠머릿살, 쇠먹이, 쇠바구미, 쇠백장, 쇠불알, 쇠뼈, 쇠뿔, 쇠뿔고추, 쇠뿔참외, 쇠살쭈, 쇠심, 쇠심떡개, 쇠심회, 쇠여물, 쇠옹두리, 쇠장, 쇠전, 쇠젓, 쇠족, 쇠죽, 쇠죽가마, 쇠죽물, 쇠죽바가지, 쇠지랑물, 쇠지랑탕, 쇠짚신, 쇠침, 쇠코, 쇠코뚜레, 쇠털, 쇠풍경
- (2) 소가족, 소간, 소갈비, 소고기, 소고깃국, 소고집, 소골, 소귀, 소귀신, 소기름, 소꼬리,

소꼬리채, 소꿀, 소다리, 소두엄, 소등에, 소똥, 소똥짐, 소머리, 소머리 편육, 소머릿살, 소먹이, 소바구미, 소백장, 소불알, 소뼈, 소뿔, 소뿔고추, 소뿔참외, 소살쭈, 소심, 소심떠개, 소심회, 소여물, 소옹두리, 소장, 소전, 소젖, 소족, 소죽, 소죽가마, 소죽물, 소죽바가지, 소지랑물, 소지랑탕, 소짚신, 소침, 소코, 소코뚜레, 소털, 소풍경

대부분의 경우에는 ‘쇠-’나 ‘소-’가 결합한 말을 혼용해서 써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3)의 예처럼 ‘쇠-’만을, 어떤 경우에는 (4)의 예처럼 ‘소-’만을 써야 맞기 때문입니다.

(3) 쇠똥구리, 쇠똥굼벥이, 쇠똥벌레, 쇠밭개발, 쇠목, 쇠뼈다귀, 쇠뿔하늘가재, 쇠서 저냐, 쇠족 지집이, 쇠쫓매, 쇠죽불, 쇠죽솔, 쇠파리

(4) 소갈이, 소겨리, 소놀음굿, 소놀이굿, 소달깃날, 소도둑, 소도둑놈, 소띠, 소먹이놀이, 소목(一目), 소몰이, 소몰이꾼, 소바리, 소바리꾼, 소바리짐, 소싸움놀이, 소씨, 소우변(一牛邊)

· 결국 ‘표준어 규정’ 제18항은 ‘쇠-’나 ‘소-’가 결합한 말 모두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두 형태가 다 널리 쓰이는 경우에 국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쇠똥구리’는 (3)의 예에 속하는 말로 ‘소똥구리’라는 형태로 쓰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준어 규정’ 제18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쇠똥구리’만이 맞습니다. <국립국어원, 질의응답, 2008.1.>

제19항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거슴츠레-하다/게슴츠레-하다, 고까/꼬까, 고린-내/코린-내, 교기(驕氣)/가기, 구린-내/쿠린-내, 꺼림-하다/껴름-하다, 나부랭이/너부랭이]

<해 설>

1. 어감의 차이가 있는 단어는 별개의 단어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에 제시된 단어들은 기원을 같이하는 단어이면서 그 어감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복수 표준어로 처리했다.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해 설>

여기서부터는 발음상의 변화가 아니라 어휘적으로 형태를 달리하는 단어들에 대한 것이

다.

제1절 고어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난봉, 낭떠러지, 설거지-하다, 애달프다, 오동-나무, 자두)

<해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제2절 한자어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구들-장, 길품-삿, 까막-눈, 나뭇-갓, 늪-다리, 두껍-달이, 푼-돈, 흰-말(백마), 흰-죽]

제22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개다리-소반, 겸-상, 단-벌, 민망-스럽다/면구-스럽다, 양-파, 총각-무, 찻-솔)

<해설>

1. 국어 어휘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한자어는 귀화어로 보아 국어의 일부로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들은 단순히 한자어이기 때문에 또는 고유어이기 때문에 표준어에서 제거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제시한 단어들은 현실 생활에서 한자어 단어는 그것에 대응하는 고유어 단어에 비해 그 쓰임이 적거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제거하였다. 이런 고유어 단어는 한자어 단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단어다. 일반적으로 고유어 단어와 한자어 단어가 경쟁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대부분 한자어 단어가 살아남았다.

2. 고유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한자어들이다.

제3절 방언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명개/우렁쟁이, 물-방개/선두리, 애-순/어린-순)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귀밑-머리, 까-몽개다, 막상, 빈대-떡, 생인-순, 역-겹다, 코-주부)

<해 설>

1. 방언이던 것이 표준어 자격을 얻은 것들이다. 원칙적으로는 애초의 표준어이던 것들은 버리는 것이 옳으나 애초의 표준어가 학술 용어에서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어로 남겨 두었다.
2. 제24항의 처리가 원칙적인 처리이다.

제4절 단수 표준어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게끔	-게시리	
겸사-겸사	겸지-겸지/겸두-겸두	
고구마	참-감자	
고치다	낮우다	병을 ~.
골목-쟁이	골목-자기	
광주리	광우리	
괴통	호구	자루를 박는 부분
국-물	멀-국/말-국	
군-표	군용-어음	軍票
길-잡이	길-앞잡이	‘길라잡이’도 표준어임.
까다롭다	까닭-스럽다/까탈-스럽다	
까치-발	까치-다리	선반 따위를 받치는 물건
꼬창-모	말뚝-모	꼬창이로 구멍을 뚫으면서 심는 모
나룻-배	나루	‘나루[津]’는 표준어임.
납-도리	민-도리	
농-지거리	기룡-지거리	다른 의미의 ‘기룡지거리’는 표준어임.
다사-스럽다	다사-하다	간섭을 잘 하다.
다오	다구	이리 ~.
담배-꽁초	담배-꼬투리/담배-꽁치/	

	담배-꽁추	
담배-설대	대-설대	
대장-일	성냥-일	
뒤져-내다	뒤어-내다	
뒤통수-치다	뒤꼭지-치다	
등-나무	등-칩	
등-때기	등-떠리	‘등’의 낮은 말
등잔-걸이	등경-걸이	
떡-보	떡-총이	
똑딱-단추	딸꼭-단추	
매-만지다	우미다	
먼-발치	먼-발치기	
며느리-발톱	뒷-발톱	
명주-붙이	주-사니	
목-매다	목-맷히다	
밀짚-모자	보릿짚-모자	
바가지	열-바가지/열-박	
바람-꼭지	바람-고다리	튜브의 바람을 넣는 구멍에 붙은, 쇠로 만든 꼭지
반-나절	나절-가웃	
반두	독대	그물의 한 가지
버젓-이	늪연-히	
본-받다	법-받다	
부각	다시마-자반	
부끄러워-하다	부끄리다	
부스러기	부스럭지	
부지깽이	부지팽이	
부항-단지	부항-항아리	부스럼에서 피고름을 빨아내기 위하여 부항을 붙이는 데 쓰는 자그마한 단지
붉으락-푸르락	푸르락-붉으락	
비켜-덩이	옆-사리미	김말 때에 흠덩이를 옆으로 빼내는 일, 또는 그 흠덩이.
빙충-이	빙충-맛이	작은말은 ‘뱅충이’
빠-뜨리다	빠-치다	‘빠트리다’도 표준어임.
뻗뻗하다	왜긋다	
뿔-내다	느물다	
사로-잠그다	사로-채우다	자물쇠나 빗장 따위를 반 정도만 걸어 놓다.
살-풀이	살-막이	
상투-쟁이	상투-꼬부랑이	상투 튼 이를 놀리는 말

새앙-손이	생강-손이	
쌈-별	새벽-별	
선-머슴	푯-머슴	
섭섭-하다	애운-하다	
속-말	속-소리	국악 용어 '속소리'는 표준어임.
손목-시계	팔목-시계/팔뚝-시계	
손-수레	손-구루마	'구루마'는 일본어임.
쇠-고랑	고랑-쇠	
수도-꼭지	수도-고동	
속성-하다	속-지다	
순대	골집	
술-고래	술-꾸러기/술-부대/ 술-보/술-푸대	
식은-땀	찬-땀	
신기-롭다	신기-스럽다	'신기하다'도 표준어임.
쌍둥-밤	쪽-밤	
쏟살-같이	쏟살-로	
아주	영판	
안-걸이	안-낙시	씨름 용어
안다미-씩우다	안다미-시키다	제가 담당할 책임을 남에게 넘기다.
안스럽다	안-슬프다	
안절부절-못하다	안절부절-하다	
앉은뱅이-저울	앉은-저울	
알-사탕	구슬-사탕	
암-내	결땀-내	
앞-지르다	따라-먹다	
애-벌레	어린-벌레	
얇은-피	물탄-피	
언뜻	편뜻	
언제나	노다지	
얼룩-말	워라-말	
-에는	-엘랑	
열심-히	열심-으로	
열어-제치다	열어-젓뜨리다	
입-담	말-담	
자배기	너벅지	
전봇-대	전선-대	
주책-없다	주책-이다	'주착→주책'은 제11항 참조
쥐락-펴락	펴락-쥐락	
-지만	-지만서도	←-지마는

짓고-땡	지어-땡/짓고-땡이
짧은-작	짜른-작
찹-쌀	이-찹쌀
청대-콩	푸른-콩
침-범	갈-범

<해설>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이 국어를 풍부하게 하기보다는 혼란을 야기한다는 판단에서 어느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단어들은 어원을 달리하는 단어이다.

ㄱ. 붉으락푸르락 : ‘오락가락’이나 ‘들락날락’이 각각 ‘가락오락’, ‘날락들락’이 되지 못하듯이, 이 종류의 합성어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기에 더 널리 쓰이는 ‘붉으락푸르락’이 표준어로 지정되었다.

ㄴ. 빙충이 : 뚫뚫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수줍어하기만 한 사람.

ㄷ. 발다리 : ‘바깥다리’의 줄어든 말. 「한글맞춤법 32항」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받쳐 적는다.” 예) 어제그저께→엇그저께. 그런데 줄어지는 음절의 첫소리 자음이 올라붙지 않고 받침소리가 올라붙는 경우가 있다.

바둑-장기→박장기, 어긋-매끼다→엇매끼다. 바깥다리→발다리.

ㄹ. 안절부절 : 몹시 불안하거나 초조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 = 안절부절못하다. ‘안절부절하다’는 부정사가 없이 쓰이면서도 ‘안절부절못하다’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특이한 용법인데, ‘안절부절하다’는 잘못된 사용으로 처리하여 표준어에서 제외했다. 이와 같은 용법을 갖는 단어가 ‘주책없다/주책이다’이다.

제5절 복수 표준어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복수 표준어	비고
가는-허리/잔-허리	
가락-엳/가래-엳	
가뭇/가물	
가엸다/가엸다	가엸어/가엸워, 가엸은/가엸운
감감-무소식/감감-소식	
개수-통/설거지-통	‘설겅다’는 ‘설거지-하다’로
개숫-물/설거지-물	
갱-엳/검은-엳	

-거리다/-대다	가물-, 출렁-
거위-배/횃-배	
것/해	내~, 네~, 뉘~
게을러-빠지다/게을러-터지다	
고깃-간/푸죽-간	‘고깃-관, 푸죽-관, 다림-방’은 비표준어임.
곰곰/곰곰-이	
관계-없다/상관-없다	
교정-보다/준-보다	
구들-재/구재	
귀통-머리/귀통-배기	‘귀통이’의 비어임.
극성-떨다/극성-부리다	
기세-부리다/기세-피우다	
기승-떨다/기승-부리다	
깃-저고리/배내-옷/배넛-저고리	
까까-중/중-대가리	‘까까중이’는 비표준어임.
꼬까/때때/고까	~신, ~옷
꼬리-별/살-별	
꽃-도미/볶-돔	
나귀/당-나귀	
날-걸/세-빨	옷판의 짚발 다음의 셋째 발
내리-글씨/세로-글씨	
넝쿨/덩굴	‘덩쿨’은 비표준어임.
넙/쪽	동~, 서~
눈-대중/눈-어림/눈-짐작 목측(目測)	
느리-광이/느림-보/늘-보	
늦-모/마냥-모	←만이앙-모(晩移秧-)
다기-지다/다기-차다	
다달-이/매-달	
-다마다/-고말고	
다박-나룻/다박-수염	
닭의-장/닭-장	
댓-돌/뒹-돌	
덧-창/겉-창	
독장-치다/독판-치다	
동자-기둥/쪼구미	
돼지-감자/똥딴지	
되우/되통/되게	
두동-무늬/두동-사니	옷놀이에서, 두 동이 한데 어울려 가는 말
뒹-갈망/뒹-감당	
뒹-말/뒹-소리	
들락-거리다/들랑-거리다	

들락-날락/들랑-날랑
 단-전/딴-청
 땅-콩/호-콩
 땀-감/땀-거리
 -뜨리다/-트리다
 뜯-긋/뜯-귀신
 마룻-줄/용총-줄
 마-파람/앞-바람
 만장-판/만장-중(滿場中)
 만큼/만치
 말-동무/말-벗
 매-같이/매-조미
 매-통/목-매
 먹-새/먹음-새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
 먹통/산-먹/산-먹통
 면-치레/외면-치레
 모-내다/모-심다
 모쭈룩/아무쭈룩
 목판-되/모-되
 목화-씨/면화-씨
 무심-결/무심-중
 물-봉숭아/물-봉선화
 물-부리/빨-부리
 물-심부름/물-시중
 물추리-나무/물추리-막대
 물-타작/진-타작
 민둥-산/벌거숭이-산
 밑-층/아래-층
 바깥-벽/밭-벽
 바른/오른[右]
 밭-모가지/밭-목쟁이
 버들-강아지/버들-개지
 벌레/버러지
 변덕-스럽다/변덕-맞다
 보-조개/볼-우물
 보통-내기/여간-내기/예사-내기
 볼-따구니/볼-통이/볼-때기
 부침개-질/부침-질/지짐-질
 불똥-앉다/등화-지다/등화-앉다
 불-사르다/사르다

깨-, 떨어-, 쏟-
 돛대에 매어 놓은 줄. '이어줄'은 비표준어임.
 '먹음-먹이'는 비표준어임.
 모-내기/모-심기
 ~손, ~쪽, ~편
 '밭목'의 비속어임.
 '벌거지, 벌러지'는 비표준어임.
 '행-내기'는 비표준어임.
 '볼'의 비속어임.
 '부치개-질'은 비표준어임.

비발/비용(費用)

뽀두라지/뽀루지

살-랭이/삶

삽살-개/삽사리

상두-꾼/상여-꾼

상-씨름/소-걸이

생/새양/생강

생-뽀/새양-뽀/생강-뽀

생-철/양-철

서럽다/싫다

서방-질/화냥-질

성글다/성기다

-(으)세요/-(으)셔요

송이/송이-버섯

수수-깡/수숫-대

술-안주/안주

-스레하다/-스름하다

시늬-말/흉내-말

시새/세사(細沙)

신/신발

신주-보/독보(獨祿)

심술-꾸러기/심술-쟁이

썩쓰레-하다/썩쓰름-하다

아귀-세다/아귀-차다

아래-위/위-아래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여튼/여하튼

앉음-새/앉음-앉음

알은-척/알은-체

애-같이/애벌-같이

애꾸눈-이/외눈-박이

양념-감/양념-거리

어금버금-하다/어금지금-하다

어기여차/어여차

어림-잡다/어림-치다

어이-없다/어처구니-없다

어저께/어제

언덕-바지/언덕-배기

열령-똥땅/엄병-땡

여왕-벌/장수-벌

여쭙다/여쭙다

삶-피

‘상도-꾼, 향도-꾼’은 비표준어임.

‘쇠뽀’의 형용. 두 개가 모두 짧게 난 소의 뽀.

1. ‘서양-철’은 비표준어임.

2. ‘生鐵’은 ‘무쇠’임.

‘설다’는 비표준어임.

거무-, 발그-

‘외대-박이, 외눈-통이’는 비표준어임.

여태/입때
 여태-껏/이제-껏/입때-껏
 역성-들다/역성-하다
 연-달다/잇-달다
 옛-가락/옛-가래
 옛-기름/옛-길금
 옛-반대기/옛-자박
 오사리-잡놈/오색-잡놈
 옥수수/강냉이
 왕골-기직/왕골-자리
 외겹-실/외올-실/홀-실
 외손-잡이/한손-잡이
 욕심-꾸러기/욕심-쟁이
 우레/천둥
 우지/울-보
 올라-대다/올라-메다
 의심-스럽다/의심-쩍다
 -이에요/-이어요
 이틀-거리/당-고금
 일일-이/하나-하나
 일찌감치/일찌거니
 입찬-말/입찬-소리
 자리-옷/잠-옷
 자물-쇠/자물-통
 장가-가다/장가-들다
 재롱-떨다/재롱-부리다
 제-가끔/제-각기
 좀-처럼/좀-체
 줄-꾼/줄-잡이
 중신/중매
 짚-단/짚-뭇
 쪽/편
 차차/차츰
 책-씻이/책-거리
 척/체
 천연덕-스럽다/천연-스럽다
 철-따구니/철-딱서니/철-딱지
 추어-올리다/추어-주다
 축-가다/축-나다
 침-놓다/침-주다
 통-꼭지/통-젓

‘여직’은 비표준어임.
 ‘여지-껏’은 비표준어임.
 ‘편역-들다’는 비표준어임.
 ‘오합-잡놈’은 비표준어임.
 ~떡, ~묵, ~밥, ~튀김
 ‘홀겹-실, 올-실’은 비표준어임.
 우렛-소리/천둥-소리
 학질의 일종임.
 ‘서방-가다’는 비표준어임.
 ‘좀-체로, 좀-해선, 좀-해’는 비표준어임.
 오른~, 왼~
 모르는~, 잘난~
 ‘철-때기’는 비표준어임.
 ‘추켜-올리다’는 비표준어임.
 통에 붙은 손잡이

